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경 축 재외동포청 개청	
	배포일자	2023년 6월 5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제물포르네상스 계획과	담당 자	• 계획2담당 • 담당자	음 현 규 ☎458-7321 송진우 ☎458-732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민사 뿌리 찾아 태평양 건너 인천에 온 요트원정대
 - 3월 4일 LA에서 출항한 요트원정대, 하와이 거쳐 92일 만에 인천 도착 -
 - 유정복 시장, “고국에 대한 애정 감사” “재외동포 따뜻하게 환대할 것” -

1902년 인천 제물포항에서 미국 하와이로 한국 최초의 이민 선조들이 떠나면서 시작된 한국이민사의 뿌리를 찾아 120여 년 만에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온 후손들을 인천시가 따뜻하게 맞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5일 송도 센트럴파크 유엔(UN) 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인천 기념행사」에서 유정복 시장이 한인 이민 120년을 기념해 태평양을 횡단해 인천에 온 요트원정대 대원 4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태평양 요트원정대의 주인공은 남진우 대장을 비롯해 유도열, 박상희, 조셉 장 대원 등 4명이다.

유정복 시장은 “한인 이민 120년 기념 태평양 요트원정대로서 인천에 대한 애정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기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며 감사의 마음을 패에 담아 전달했다.

요트원정대는 지난 3월 4일 로스엔젤레스(LA) 마리나 델 레이(Marina Del Rey) 항에서 요트 이그나텔라호를 타고 인천행 여정에 올랐고, 하와이, 사이판, 통영 등을 거쳐 출발 92일 만인 6월 4일 중구 왕산마리나에 입항했다. 이들은 재외동포청 개청을 기념하고자 길이 37피트, 중량 3만 2,000파운드 재원의 요트 하나에 의지한 채 항해거리로는 지구 반 바퀴가 넘는 약 15,000마일(약 24,000km)을 항해해 인천을 찾았다.

요트원정대원 4명 중 3명은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다. 남진우 대장은 1960년 부산에서 출생해 1975년 미국으로 건너갔고, 유도열 대원은 1954년 인천에서 출생해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이라크 파병 출신인 조셉 장 대원은 인천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갔다. 박상희 대원은 한국 국적이지만 요트 횡단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떠나 이번 횡단에 동참했다.

이들은 LA에서 하와이까지의 1차 항해에 함께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돌아와야 했던 박상희, 조셉 장 대원은 지난달 27일 통영에서 남진우 대장, 유도열 대원을 다시 만났다. 이들 4명의 원정대는 다시 한 배에 몸을 싣고 지난달 30일 통영을 출발, 6월 4일 최종 목적지인 중구 왕산마리나 해상계류장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우리 민족의 공식 이민의 시작은 190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따뜻한 날씨와 힘들지 않게 일하고 금화로 품삯을 받는다는 소문에 이민을 결심한 121명이 제물포항 잔교에서 작은 배에 나누어 몸을 실었다. 121명 중 8할이 넘는 수가 제물포, 강화, 부평, 교동 출신의 인천인이었다. 그렇게 정부 승인에 따른 첫 공식 이민은 인천 사람을 중심으로 인천에서 시작됐다.

120년 전 이민 선조들이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고 몸을 실었을 태평양 항해 길에, 후손들은 선조들과 같은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바닷길에 올랐다.

남진우 대장은 “이민 역사 120주년을 맞아 이민자이자 역사의 일부인 한 사람으로서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며, “대한민국 이민의 뿌리인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문을 열게 돼 기쁘다” 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한국이민 역사의 출발점인 인천이 750만 재외동포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며, “인천에서 고국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을 환대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요트원정대는 오는 6일 오전 한국이민사 박물관에서 열리는 ‘연어의 귀환’ 기념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